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Demand Index by Region

Woo Young Song*

Dept. of Music Ministry,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In Korea, with the rapid growth, the size of the performing arts market has increased greatly. However,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growth biased to specific sectors and regional biases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Therefore,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there is a need for the appropriate supply of performance arts and facilities suitable for the demand level of each region. In this study, the regional performing arts demand index was developed in order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lso, this paper presented a method to utilize the developed performance art demand index. In order to calculate the demand index, the ratio of 20s and 30s i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income per capita were selected as input factors for performing arts demand. As the performance factor of performing arts demand, the average number of performance days and operation rate were selected. The selected factors were converted into standardized scores and applied to the index. Also, the structure of the integrated database system for periodic calculation of regional indexes is presented. As a result of index calculation based on 2017, the demand index of metropolitan area such as Seoul and local metropolitan cit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The comparison of the demand index by region and the number of seats per thousand people showed that the number of seat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mand in Ulsan and Incheon, and the number of seats in Gangwon-do and Jeollanam-do was higher than the dem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hree-year demand index by region, the demand index fell the most in Daegu compared to three years ago, and the index rose the most in Gwangju and Jeju.

© 2019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Performing arts demand, Demand index, Integrated database, Performance days, Operation rate

ARTICLE INFO: Received 11 October 2019, Revised 14 November 2019, Accepted 7 December 2019.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Dept. of Music Ministry*
Korea Nazarene University, 48 Wolbong-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172, S.KOREA.
E-mail address: jazzbass@kornu.ac.kr

1. 서론

한국은 1950년 초반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이후 지난 수 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2018년에는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공연예술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영화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높은 자국영화의 점유율과 저명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분야의 선진국을 넘어서 문화공연예술 분야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표면상 성공의 이면에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연예술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성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악분야에서는 대형기획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화의 경우에는 일부 블록버스터 영화의 좌석점유율이 매우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공연예술분야에 자본이 결합되면서 문화의 다양성 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공연예술 및 관련 시설의 지역별 편중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진행되었고 이로 자본과 인구가 일부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를 개발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연예술분야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격차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많은 대규모 공연이 수시로 열리고 있고 주거지 인근에 멀티플렉스극장이 위치하고 있어 관심있는 영화를

보기도 용이하나 지방의 경우 개최되는 공연수 자체가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익성 추구가 목적인 민간분야에 맡기게 되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인지도가 높지 않은 공연예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연예술 소비자들과의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로 절대적인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수요 수준을 평가하여 지역에 적합한 시설 등을 공급하고 공연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연예술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 중 두 번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로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지수를 개발하는 시스템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 공연시설 및 지수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수산정을 위한 항목을 도출한 후 지수도출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지수산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각 항목별 비교가능성을 위해서 표준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수의 산정이 통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수산정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지역별 지수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인 분석과 함께 인구 천명 당 객석수 등을 토대로 현재 지역별 공연실태와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을 통해서 향후 공연예술정책 수립 시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공연예술사업 및 지수개발 선행연구 검토

공연예술사업과 관련한 연구로 송우영(2017, 2018)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지역별 공연장의 실정을 기준으로 공연예술시설의 입지선정 및 사업성평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주석 외(2015)는 문화공연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분석에서 Two-equation과 Tobit모형을 통해서 공연수요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과 연령, 교육수준, 성별, 거주지 등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준(2008)은 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책이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하는지를 미국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박광국(Park Kwang guk) 외(2003)은 문화예술회관의 투자효과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할인율이 5~6%인 경우 편익대비 비용비율이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할인율이 7%를 초과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개발과 관련한 연구로 정홍원(2016)은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체계를 제시하면서 수요요인으로 연령별 인구와 소득상황 등을 적용하고 공급요인으로는 예산과 시설 수 등을 제시하고 이를 결합하고 보건복지지수를 개발하였다. 김소영(2013)은 예술관련 통합적인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예술의 생산과 재정, 성과, 시설, 향유 등을 항목으로 적용하였다. 산정된 지수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향후 개선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송태정(2013)은 국가별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국가별 경제고통지수를 산정하여 제시하고 연도별 시계열 분석으로 경제고통지수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에의 수요측면에서의 지수를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3. 공연예술 수요지수 개발 및 도출

3.1 공연예술수요지수 설계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의 지역별 수요수준을 파악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연예술의 수요는 인구와 소득과 같은 투입요소가 기반이 된다. 특정 지역에 인구가 많으면 잠재수요가 충분해지고 소득이 높으면 잠재수요가 공연을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의 기반이 되는 인구가 많고 소득이 높아도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실제 공연예술의 소비에 적극적으로 없다면 수요가 많다고 판정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시점으로 최신 자료인 2017년 결과를 기준으로 한 2018년 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 제시한 광역단위 지역별 공연일수와 공연시설의 가동률을 산출변수로 하여 수요지수개발에 활용하였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제외하였다.

$$\begin{aligned} & \text{지역별 공연예술 수요지수 산정} \\ & = \text{경제활동인구 중 2030비율} + 1\text{인당 소득} \\ & \quad + \text{공연일수} + \text{공연장 가동율} \end{aligned}$$

선정된 지수의 각 요인들은 측정항목이 다르므로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의 방법은 각 요인을 평균 0,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한 후 지역별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인 표준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표준화점수} = (\text{지역별 수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각 지수항목별 평균이 0이므로 한 지역이 모든 지수항목에 대해서 평균값을 가지게 되면 지수값

도 0이 되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보다 높으면 양(+)값을 가지게 되고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가지게 되면 음(-)값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수요지수 값은 해당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요수준이 높은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지수개발에 활용한 각 요인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인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수에 포함하였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수를 그대로 지수개발에 활용할 경우 지역별 인구편차가 과대평가되어 적용되고 2017 공연예술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공연예술 소비비율이 높으므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30대의 비율을 산정하여 지수의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인구와 20-30대 인구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서울특별시가 40%로 가장 높고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38%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2017년 기준)
Table 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구 분	경제활동인구 A (천명)	20-30대 인구 B (천명)	비율 (B/A)
서울특별시	5,396	2,177	40%
부산광역시	1,766	626	35%
대구광역시	1,291	423	33%
인천광역시	1,607	598	37%
광주광역시	766	272	36%
대전광역시	791	300	38%
울산광역시	605	223	37%
경기도	6,953	2,609	38%
강원도	811	238	29%
충청북도	880	299	34%
충청남도	1,174	411	35%
전라북도	944	275	29%
전라남도	988	256	26%
경상북도	1,488	438	29%
경상남도	1,775	571	32%
제주도	382	127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와 함께 투입요인 중 하나인 지역별 1인당 소득은 서울특별시가 21,429천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요인인 공연장별 평균 공연일수에서는 서울특별시가 152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와 대전광역시 순으로 공연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의 가동율은 제주도가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와 울산광역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많아 경제활동인구나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연일 수가 많고 가동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지역별 1인당 소득과 성과요인
Table 2. Per Capita Income and Performance Factors by Region

구 분	1인당 소득 (천원)	평균공연 일수	가동률 (%)
서울특별시	21,429	152.1	77.0
부산광역시	18,332	99	67.6
대구광역시	17,568	65.9	51.8
인천광역시	17,550	86.3	59.6
광주광역시	17,343	91.2	62.4
대전광역시	18,454	118.9	70.9
울산광역시	19,912	95	73.9
경기도	18,580	69.4	48.9
강원도	16,583	49.1	42.2
충청북도	17,030	62.2	52.1
충청남도	17,613	48.7	44.2
전라북도	16,848	77.5	52.5
전라남도	15,938	29	38.7
경상북도	16,504	44.4	46.9
경상남도	16,864	48.4	44.8
제주도	17,464	136.1	77.6

자료 : 통계청,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

3.2 지수산정 시스템 구축 및 결과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지수는 일시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일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보다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추이를 분석할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다. 따라서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수요지수가 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입요소로서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정보와 1인당 소득을 정기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연예술실태조사 자료를 함께 통합하면 지수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30대 인구의 비율로 변형하고 각 요인을 표준화하면 공연예술수요지수의 산정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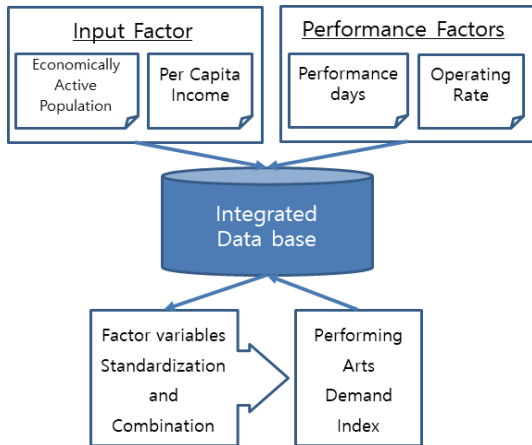


그림 1. 공연예술수요지수 시스템 구조
Figure 1. Structure of Culture Art Demand Index System

앞서 살펴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역별 수요지수를 산정하였다. 각 항목이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항목별로 0이상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볼 수 있다. 산정된 수요지수의 분석 결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를

제외하면 모두 양(+)의 수요지수를 나타냈으나 지방 도지역의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모두 음(-)의 수요지수가 나타났다. 수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7.96점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요인이 모두 1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특히 1인당 소득과 공연일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4.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1인당 소득과 가동률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수요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도 -6.21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활동 인구비율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수요지수가 낮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비율과 가동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수요지수는 4가지 요인 모두 0보다 작아서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음(-)의 수요지수를 보였다.

표 3. 지역별 수요지수 산정
Table 3. Regional demand index

구 분	경제 활동 비율	1인 당 소득	공연 일수	가동 율	수요 지수
서울특별시	1.66	2.67	2.09	1.54	7.96
부산광역시	0.41	0.42	0.56	0.82	2.20
대구광역시	-0.28	-0.13	-0.39	-0.39	-1.20
인천광역시	0.86	-0.15	0.19	0.20	1.11
광주광역시	0.42	-0.30	0.34	0.42	0.88
대전광역시	1.04	0.51	1.13	1.07	3.75
울산광역시	0.77	1.57	0.44	1.30	4.08
경기도	0.94	0.60	-0.29	-0.62	0.63
강원도	-1.16	-0.85	-0.88	-1.13	-4.01
충청북도	0.03	-0.52	-0.50	-0.37	-1.37
충청남도	0.29	-0.10	-0.89	-0.98	-1.67
전라북도	-1.21	-0.66	-0.06	-0.34	-2.27
전라남도	-2.04	-1.32	-1.46	-1.40	-6.21
경상북도	-1.13	-0.91	-1.01	-0.77	-3.82
경상남도	-0.43	-0.64	-0.90	-0.93	-2.91
제주도	-0.16	-0.21	1.63	1.58	2.85

이렇게 지수의 항목별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공연예술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예술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4. 수요지수의 활용

공연예술수요지수는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객석수와 지수의 비교와 3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요지수가 높다는 것은 인구구조와 소득, 현재 공연시설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요가 높은 곳에 필요한 수준의 공연시설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 공연시설의 공급이 수요수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별 수요지수와 객석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의 규모가 다르므로 전체 객석수를 비교하지 않고 인구 천 명당 객석수를 비교하였으며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지수의 순위와 인구천명 당 객석수의 순위를 비교하였다. 비교방법으로는 지수의 순위에서 객석수의 순위를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순위차이가 클수록 수요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객석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객석수가 부족한 지역은 수요지수는 2위이나 천명 당 객석수는 14위에 불과한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가동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상대적으로 수요지수 대비 객석수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수

요지수 대비 객석수가 많은 지역으로는 수요지수는 15위이나 천명 당 객석수는 2위인 강원도와 수요지수는 16위이나 객석수는 5위인 전라남도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공연예술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수요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지역별 수요지수와 객석수
Table 4. Demand index and seating capacity

구 분	수요 지수	수요 지수 순위	천명 당 객석	객석 수 순위	순위 차이
서울특별시	7.96	1	16.4	3	2
부산광역시	2.20	5	7.5	13	8
대구광역시	-1.20	9	8.6	12	3
인천광역시	1.11	6	5.3	16	10
광주광역시	0.88	7	8.7	11	4
대전광역시	3.75	3	12.2	7	4
울산광역시	4.08	2	7.3	14	12
경기도	0.63	8	6.6	15	7
강원도	-4.01	15	18.7	2	-13
충청북도	-1.37	10	9.4	10	0
충청남도	-1.67	11	12.4	6	-5
전라북도	-2.27	12	15.7	4	-8
전라남도	-6.21	16	12.5	5	-11
경상북도	-3.82	14	11.3	8	-6
경상남도	-2.91	13	9.8	9	-4
제주도	2.85	4	30.6	1	-3

지역별 공연예술수요지수의 시계열 분석은 해당 지역의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래 표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수요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8년에서 2018년의 수요지수를 차감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가 공연장 가동일수와 가동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도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대응방

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연도별 수요지수
Table 5. Culture Art Demand Index by Year

구 분	2015년 (A)	2016년	2017년 (B)	B-A
서울특별시	7.86	8.10	7.96	0.11
부산광역시	1.90	2.25	2.20	0.31
대구광역시	2.22	1.23	-1.20	-3.42
인천광역시	0.81	0.90	1.11	0.29
광주광역시	-0.18	0.44	0.88	1.06
대전광역시	3.17	3.07	3.75	0.59
울산광역시	3.41	5.17	4.08	0.67
경기도	0.48	0.71	0.63	0.15
강원도	-4.33	-4.78	-4.01	0.32
충청북도	-1.54	-2.29	-1.37	0.17
충청남도	-1.74	-1.82	-1.67	0.07
전라북도	-1.75	-1.76	-2.27	-0.52
전라남도	-5.51	-5.68	-6.21	-0.70
경상북도	-3.71	-4.41	-3.82	-0.11
경상남도	-3.05	-2.05	-2.91	0.15
제주도	1.98	0.93	2.85	0.86

5. 결 론

한국은 고도성장과 함께 소득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에 대한 시장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정부의 지원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대중예술 등 특정부문에 치우친 성장과 수도권 중심의 지역별 편중현상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분야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수요수준에 적합한 공연예술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별 공연예술 수요지수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지수를 개발

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투입요인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성과요인으로 공연장별 평균 공연일수와 가동률을 적용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산정결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의 수요지수가 양(+)의 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1.2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방도 지역에서는 전라남도과 강원도의 수요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수와 인구 천명 당 객석수를 비교하였으며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지수에 비해서 객석수가 부족하고 강원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수요지수에 비해서 객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3년간의 수요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가 3년 전에 비해서 수요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는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먼저 공연예술수요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수요요인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공연예술의 정책을 수립 시에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할 때 공연예술시설의 공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과 같이 고령화수준이 높은 지방지역의 경우 수요에 비해서 시설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연예술을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별 공연예술의 수요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산정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한계점도 있다. 먼저 지수의 특성 상 지역 간 상대적 비교수준을 제시하므로 공연일자와 시설 가동률 등 항목별로 어느 정도가 충분한 수준인지 절대적인 지표

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전문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해서 광역단위의 지수 밖에 산정하지 못했으며 각 지수항목별로 적절한 가중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정교한 지수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J-S. Lee, S-J. Kwak, and S-K. Cho, *The analysis of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demanders for cultur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5, pp. 3155-3161, 2015.
- [2] H-W. Jung, *Local supply of and demand for welfare provisions : Policy implication*, Health and Welfare Forum, pp. 31-44, 2016.
- [3] W-Y. Song, *A study on the optimal regional placement of performance fac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8, No. 1, pp. 197-202, 2017.
- [4] W-Y. Song,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analyzing feasibility of musical performance*,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Vol. 13, No. 6, pp. 677-686, 2018.
- [5] J-H. Sung, *A study of the effect of art specific human capital on the demand for artistic-cultural good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25, No. 1, pp. 657-677, 2012.
- [6] C-J. Lee, J-B. Kim, *Demand for classical music, concerts from transaction cost perspectiv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17, No. 2, pp. 3-28, 2014.
- [7] T-J. Song, *Economic pain index by country*, LG Weekly Economy, p. 23, 2003.
- [8] G. Park, U. Do, and H. Ju, *Investment effect analysis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construc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Vol. 15, No. 4, pp. 937-952, 2006.
- [9] E. Y. Hur. *A study on the efficiency indicators of the cultural institutions*, Korea Cultural & Tourism Institute, Jun. 2010.
- [10] E. Lee, and Y. Chung, *Study on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for the regional arts center in korea*, The Study of Arts Management, Vol. 17, pp. 85-110, 2010.
- [11] Y. Kim, *An effect of brand power of arts center on ticket purchase behavior*, The Study of Arts Management, Vol. 22, pp. 29-58, 2012.
- [12] H. Jin, and S. Kang, *Market segmentation for culture facilities according to culture consumption pattern and lifestyle*, Review of Culture & Economy, Vol. 15 No. 2, pp. 79-101, 2012.
- [13] K. Kwon, and S. Yoon,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Using Specific Cultural Clust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776-787, 2014.
- [14] S. Kim, *An evaluation of the equity of grant allocation to each state*,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0, pp. 126-147, 2008.
- [15] J. Seo, and J. Lee, *A study on building of cultural facilities by corporate culture marketing*, Academic association of global cultural contents, Vol. 18, pp. 45-68, 2015.
- [16]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Performance Consumption Trend Report*, Q4, 2017.
- [1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rvey on the performing art*, 2018.

지역별 공연예술 수요지수개발에 대한 연구

송우영

나사렛대학교 음악목회학과 부교수

요 약

한국은 고도성장과 함께 공연예술시장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특정부문에 치우친 성장과 수도권 중심의 지역별 편중현상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분야에서 각 지역의 수요수준에 적합한 공연예술의 실행 및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별 공연예술 수요지수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공연예술 수요의 투입요인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20대와 30대의 비율과 1인당 소득을 선정하였다. 공연예술수요의 성과요인으로 공연장별 평균 공연일수와 가동율을 표준화된 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지수산정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조도 제시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산정결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의 수요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요지수와 인구 천명당 객석수의 비교에서는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객석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수요에 비해서 객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3년간의 수요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가 3년 전에 비해서 수요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는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Woo-Young Song received the bachelo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Material And Metallurgy Engineering from the Hong-Ik University in 1997. He graduated the Jazz Composition major (Music Diploma), Berklee College of Music, Boston, USA in 2002. He received the master's degree(MM) fro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in 2005. From 2005 to 2006, he was member of BMI Jazz Composers Workshop, NY, USA. 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usic Ministry, Korea Nazarene University since 2009.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application development, music producing system. He is a member of the KKITS.

E-mail address: jazzbass@kornu.ac.kr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9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